

Greetings

KIST에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의 새 장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며 땀흘리 왔던 귀기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난 20세기가 산업시대라면 지금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로 전이되는 시대적 전환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범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설립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차원 지식정보화 연구기관의 설립이라는 의미와 국가 과학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한 과학기술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띤 연구진흥기관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아마도 '지식'과 '정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지식정보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연구·운영하는 기관의 출범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분부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전진차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21세기 지식정보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완의 부분이 많기에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요소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마인드에 정보화를 새겨넣어 숨겨놓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야 합니다. 여러 기관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구조 개혁을 지원하고, 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컨텐츠와 그러한 정보의 고급화를 위한 컴퓨팅과워치원 그리고 정보의 동토인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이 정보화시대의 인프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슈퍼컴 3호기 도입과 더불어 정보컨텐츠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첨단 DB개발과 해외 DB확충에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연구용 종횡의 고도화를 위하여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합리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구연구개발정보센터와 산업기술정보원의 원활한 통합을 부탁드립니다.

두 기관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기관으로 출범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이었고 경영합리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합과정은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이 해왔던 업무를 잘 파악하여 양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갖을 수 있도록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된 양 기관의 조직에는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기관의 통합에는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눈앞의 현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십시오. 조기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되어 국가 지식정보화에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과 힘을 모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어려운과 어려운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에 '부탁의 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정보통신부장관 안 병 업